

문화광장



이한영 제주해녀문화보존회장·교육학 박사

어쩌다 금연

이 필요 없습니다. 보험 수혜자는 본인인 가입 시 직계 가족은 물론 직장 동료까지 그 혜택이 돌아옵니다. 가입비가 없으면 물론이고 가입과 동시에 평생 매일 2500원이 지급됩니다. 참! 그 좋은 보험 이름이 뭐냐구요? 그 보험의 이름은 금연입니다.”

이 글은 2012년 12월 11일 필자가 금연을 결심하며 한 신문에 기고한 글의 일부이다. 보험이란 사고 및 질병의 위험을 갖고 있는 경제주체가 모여 공동준비재산을 만들어 두고, 일정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를 소극적 보험 행위라 본다면, 그 위험요인을 원천적 제거하는 것이 적극적 보험 행위라 생각해 ‘금연은 보험’이라는 취지로 쓴 글이다.

위 글을 통해 2012년 당시와 2020년 현재를 비교해 보면, 첫째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고 둘째 2018년부터 금연

장소가 생활권인 사무실, 아파트, 공원, 체육시설, 버스정류장, 숙박업소, 식당은 물론 술집까지 광범위하게 넓혀져 격세지감을 느낀다.

일마 전 지인에게 오래간만에 제 주공함에 와서 청사내 흡연부스를 찾다가 비행기를 놓쳤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래 금연구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러한 국가금연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5.8%였던 국내 성인 흡연율은 현재 22.4% 낮아졌고 특히 남성 흡연율은 43.7%에서 36.7%로 낮아졌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11.4%에 달하던 청소년 흡연율은 6.7%로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금연에 대한 국가정책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내 남성 흡연율은 1위이며 10%대인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 그리고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85%를 흡연으로 꼽고 있는데도 금연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필자 또한 2012년 글까지 써가며 결심한 금연이 채 1년을 못가 다시 흡연자가 되었으니 말이다.

코로나19로 전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초기 대응으로 전세계에 방역성공국가의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 경기침체에 대한민국만 예외일 리 없다. 특히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도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물하고 힘들 때 담배로 손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흡연자는 만성 기저질환자와 함께 코로나 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잊지 마자. 차라리 이참에 금연을 결심해 보면 어떨까? 훗날 코로나19 덕에 어쩌다 금연을 하게 되었다는 옛이야기 하는 좋은 시절이 다시 오길 기원해 본다.

사설

클럽 집단감염, 느슨한 생활방역에 경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엄습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정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황금연휴 기간에 방역망이 풀리면서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제주지역까지 미치면서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에서도 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A(30대 여성)씨의 1차 동선 확인 결과를 10일 공개했습니다. A씨는 이날 자진신고로 통해 “5월 2일 출도한 뒤 5일 0시 30분부터 06시까지 이태원 클럽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10일에는 국내 신규 확진자가 34명 늘었습니다. 이

같은데 26명은 지역사회 감염사례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고 대구와 충북 등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자마자 집단감염이 발생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이태원 클럽발 신규 감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렇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최근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가 10명 가까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감염까지 발생해 경제심을 늦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바이러스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생활방역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름철 양돈농가 악취, 올해도 반복되나

도내 양돈농가 악취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기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실태조사 강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무색하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다음달 들어 여름 무더위를 앞둔 상황에서 양돈농가 악취 민원이 다시 고조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제주도가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의뢰해 악취관리지역 112개 양돈농가 및 인근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올 1분기 악취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농가 59개소, 30% 이상 초과율을 보인 농가 21개소로 각각 나왔습니다. 여전히 조사 대상 농가 절반 이상이 허용치를 넘었고, 초과율 30% 이상 농가도 다시 나왔습니다. 읍면별로는 조천읍 대정읍 한림읍이 심한 악취 농도를 보였습니다.

제주지역 양돈 악취민원은 고질적 사안인만큼 관광지 특성으로 인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일찌감치 등장했습니다.

행정도 이를 의식해 오래전부터 악취저감을 위한 농가지원을 해온데 이어 지난 2018년에는 전담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도 농가의 반발로 법적소송까지 벌인 끝에 승소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도입으로 농가·지역별 악취관리를 분기별로 점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농가의 절반이상이 허용치를 초과한 결과는 그간 행정기관과 일부 양돈농가의 악취저감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질적인 악취 민원지역이 계속 문제시됩니다. 양돈악취나 가축분뇨관리 문제는 시설 현대화와 적정 사육두수 유지, 농가의 의지, 분뇨 자원화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단기·장기에 걸쳐 여러 요인들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해소될 쉽지않은 사안입니다. 제주도는 그럼에도 다음달로 다가온 장마철과 여름 피서철 양돈농가 악취 민원 예방에 지금부터 전력질주해야 합니다.

뉴스-in

서귀포 공공보건의료 필요성 인식 ‘열공’

생강 재배 실증시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가 무, 당근 등 월동채소 과잉 생산 우려를 줄이는 작목 분산 및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생강’ 재배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

도는 생강 씨눈을 1개, 2개, 3개 등으로 나눠 2반복으로 시험구를 배치하고 재배관리는 농가관행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실증시험을 진행할 계획.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생강을 도내 수급 및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등 단계적으로 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소개. 이태윤기자

의료안전망 구축 ‘난상토론’

○...서귀포시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매주 월요일 시장실에서 난상토론.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은

지난해 읍면 3개소 보건지소 기능 강화 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대형구급차 구입·헬기이착륙장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

양운경 시장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 현영종기자

‘법전문 15위 이내 목표’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 8개 거점국립대 중 4위, 전국 25개 법전문 중에서는 17위.

역대 최대 합격자를 배출해낸 제주대는 이번에 입학정원(40명) 대비 합격률이 80.0%로 거점대 중에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에 이은 순위를 기록.

이성근 원장은 “전국 15위권 이내 진입이 당초 목표였으나 여기에 못미쳐 다소 아쉽다”며 “내년에는 15위권 이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점언. 진선희기자

열린마당

노인 우울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영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내고 있다.

노년기는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나 장애, 감정의 변화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지만 정작 현실은 노인의 우울증상을 발견하고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노인의 우울증상은 신체적인 증상과 함께 나타나기에 우울증상을 구별하기 쉽지 않고, 노인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우울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노화의 과정’으로 오인하고 마음이 아픈건지 질병인지 모른채 우울한 감정을 간과하며 지낸다. 이는 마음의 질병이며 아픔이다.

우울 문제를 경험하는 어르신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정신적, 심리적 안녕은 물론 신체적 기능의 약화와 다양한 신체 질환을 초래 할 수 있다.

마음의 감기인 노인 우울은 치료할 수 있으며 치료 받으면 더 나은 삶은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삼촌들이 기쁘고 밝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임성조 어머니 진주강씨 자화(향년 97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11일 08시 31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5월 12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5월 13일(수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대포동 선영
아들 임웅철(배) 며느리 윤기만, 성조 김순선, 종철 현애화, 딸 임창복 사위 김두경(배), 선영 좌창우희, 정순 윤덕희, 정숙 김홍기, 손자 임상돈 외손자 김동석, 형준 좌상훈, 석준 윤성호, 김민철
* 연락처 : 임성조 010-4001-7697, 임웅철 010-3696-6127, 윤덕희 010-2693-7594, 김홍기 010-2685-4689

부 고
장태준(건축사사무소 장원) 어머니 한양조씨 계숙(향년 97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10일 07시 49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5월 12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5월 13일(수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4층)
장 지: 아흔아홉골 가족묘지
아들 장태준 며느리 김인숙, 딸 장영춘 사위 진창희, 장이화 고태하, 손자 장지환 외손자 고승찬, 손녀 장유리 외손녀 진민경, 진민형 고연주, 고주희
* 연락처 : 장태준 010-2019-5311, 김인숙 010-5644-5182, 장영춘 010-2690-3261, 장이화 010-5262-6102, 진창희 010-9663-1593, 고태하 010-3697-450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강영희(향년 7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5월 12일
남편 현상호, 아들 현재준 며느리 이현정, 승준 박은진

상속한정승인공고
*성 명 : 양 김경택(1975. 11. 14생)
*최후주소 : 제주시 남평로 65, 104동 104호(이도이동 행정복지센터)
상기자는 2020년 1월 13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5월 4일 제주지방법원 2020년22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남평로 65, 104동 104호(이도이동 행정복지센터)
충장초·서귀포시 대정읍 중앙로 43 (동명리, 대정초등학교)
☎ 010-4816-7172
2020년 5월 12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정 문 숙

분실공고
● 분실물 :
번호 | 이름종류 | 이름번호 | 비고
1 | 악수어울 | 자가00109771 |
2 | 악수어울 | 자가00067632 |
3 | 악수어울 | 자가00255798 |
4 | 악수어울 | 자가00200222 |
5 | 악수어울 | 자가00246663 |
상기 계약서를 분실하였기에 분실물에 대한 무효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위 공고인 양 준 봉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